

인지적 접근의 번역 모형

이 근 희
(건국대)

1. 서론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그 존재를 믿기도 어렵거니와 존재한다고 믿더라도 그 존재의 형체를 가늠하기도 힘들다. 번역에 있어서, 번역자의 두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의 과정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원저자의 산출물인 원천 텍스트나 번역자의 최종 결과물인 목표 텍스트는 바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이를 둘러싼 논의가 분분하기는 해도 적어도 존재 여부 또는 존재의 형체에 대한 논의는 애당초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번역의 과정은 다르다. 물론 번역 과정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원천 텍스트가 번역자의 손을 거치면서 목표 텍스트로 산출되기까지는 분명 번역자의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어떠한 과정이 존재할 것이라는 짐작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번역의 전반적인 과정을 밝히고자하는 시도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번역을 단순히 언어에서 언어로 옮기는 언어 현

상으로 이해하는 언어학적인 접근을 시작으로 기호학적인 접근, 기능적인 접근, 구성주의적 접근, 인지적 접근, 해석적 접근, 목적이 있는 행위적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 다체계적 접근, 규범적 접근 등의 방법론적인 접근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번역이 단순히 언어적인 현상이 아님은 이미 학계에 자명한 일이고,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토대로 한 통합적 접근 방법으로 이를 밝히고자 하는 시도가 현 추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이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실증 가능한 이론으로 일반화되지 않았기에 이러한 모든 시도를 ‘모형(model)’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번역 모형을 분석하는 일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토대로 하는 다양한 방법론적인 접근을 시도한 모형의 조사와 분석은 번역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이에 대한 건전한 비평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번역의 전반적인 현상을 밝히려는 시도에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지학적인 관점으로 번역의 과정을 밝히고자 시도한 소수의 대표적인 번역 모형을 소개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평을 통해 필자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대표적인 번역 모형들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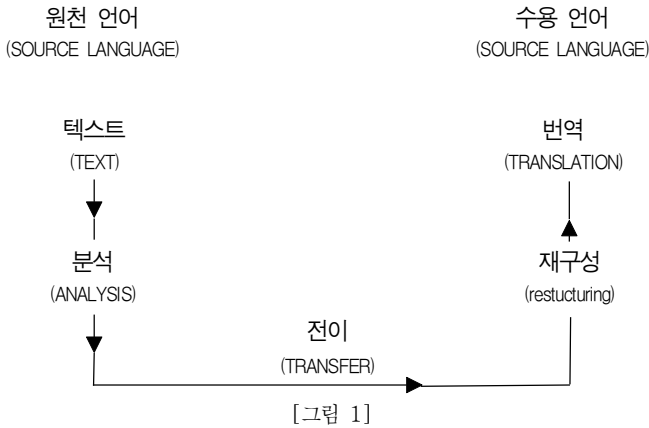
2. 본론

2.1 기호해독/재기호화 모형

번역을 단순히 언어학적인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최초로 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한 나이다(Eugene A. Nida 1969)는 번역의 의사소통 행위와 독자의 반응(receptor's response)에 초점을 두었다. 나이다는 ‘형식적인 대응(formal correspondence)’(27)보다는 “등가의 효과 원리(the principle of equivalent effect)”에 입각한 역동적 등가(dynamic equivalence)를 추구했는데, 이는 원천 텍스트의 독자와 메시지 간에 존재했던 관계가 번역 텍스트의 독자와 메시지 간에도 동등한 관계가 실질적으로 성립하도록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번역시 언어적 수준을 초월해 기호를 해독하고 재부호화하는 과정이 이루

어진다. 루즈카노프(Ludskanov)는 이를 기호의 변형(semiotic transformation)이라 했다(Bassnett. 25). 이 모형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Nida & Taber 484).

기호해독/재기호화 모형
(번역=의사소통행위)



나이다의 번역모형에서는 분석(analysis)과 전이(transfer), 재구성(restructuring)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번역자는 먼저 원천 언어로 쓰인 원천 텍스트를 분석하게 된다. 원천언어의 전달내용 분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천 텍스트의 전달내용이 가장 간단한 핵문(kernel sentence or core sentence) 단위로 분석된다는 점이다. 이는 가능한 한 의미의 손실이나 왜곡 없이 전달 내용을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표층구조는 심층구조의 핵문으로까지 분석된다. 핵문은 가장 간단한 문장의 형태로서 한 언어에서 핵문에 해당하는 문장의 형태는 대개 6개에서 12개 사이로 극히 제한적이어서 원천 언어와 수용언어 간의 구조적인 차이가 그만큼 좁혀진다. 핵문은 행동(event)을 나타내는 행동명사나 동명사, 부정사 등이 서술형의 동사로 바뀌어지고 각 문장구성 요소간의 논리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의성(重義性)이 적은

형태로 나타난다. 핵문은 표층구조 문장의 원천 텍스트를 심층구조로 변형시킴으로써 생성되기 때문에 원문에 생략된 요소들이 명백히 드러난다. 핵문은 또한 평서문이나 긍정문, 능동문, 특정의 형식을 갖춘 문장 구조로 나타나므로 의미보존이 잘 된다. 따라서 분석의 단계에서 핵문의 추출은 필수적이다.

원천언어의 전달내용 분석이 완료되면 수용언어로의 전이가 시작된다. 원천언어의 전달 내용을 전이하는 과정에서는 의미성분의 구조가 재배치된다. 의미 성분 구조가 어떠한 변형 없이 그대로 수용언어로 전이되었을 경우 의미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원천 언어의 특정 단어가 독특한 그 문화만의 의미 성분을 내포하고 있을 때, 종합적인 수용언어로 전이가 가능한 경우는 의미성분의 구조를 재배치해야 한다.

원천 언어의 전달내용이 분석되고, 전달내용의 의미성분이 최소한으로 손실된 채 전이과정을 거쳐 수용언어로 넘어오면 전달내용의 의미성분은 수용언어의 문법 체계 및 언어 사용의 관습에 적합하고 적절하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2.2 구성주의(Konstruktivismus) 모형¹⁾

독일의 관념론에 토대를 두고, 인지적 접근의 인공두뇌학과 생물학, 관찰자 이론, 구성주의 인식론, 사회학, 언어문예이론을 중심으로 번역과 구성주의 이론을 접목을 시도하는 봉일원·박여성(1994)의 모형을 살펴보자.

2.2.1 구성주의의 주요 개념

구성주의의 이해에 반드시 필요한 슈미트(Schmidt)의 개념인 실재(Realität), 현실(Wirklichkeit), 현실모형(Wirklichkeitsmodell)으로서의 문화, 관찰자(Beobachter), 자기구성적 체계(autopoietische System), 정보(구성)행위(Kommunikation), 창발현상(Emergenz), 공감(각적)영역(konsensuelle Bereiche), 공지시성(Synreferentialität), 코무니카트(kommunikat)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다

1) 봉일원·박여성(1994)의 주요 내용을 발췌·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창발현상’라든가 ‘창발체’, ‘코무니카트’와 같은 주요 용어 역시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음과 같다.

구성주의의 핵심은 존재론적 실재와 인지된 현실의 구분에 있다. 구성주의는 실재에 대한 모든 명제(proposition)가 100% 인지개체의 체험된 현실임을 강조하는데, 이는 인지란 생물학적 현상으로서 존재론적 실재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실재에 대한 두뇌의 자기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지된 세계는 인지주체의 현실로서 외재하는 실재 그 자체가 아니며, 인간은 객관적인 실재에 대해 자신들이 구성한 인지적 현실 속에 산다. 따라서 “상이한 문화는 동일한 객관적 실재의 역사적 가공이 아니라, 동등한 지위의 상이한 현실모형에서 출발한 당연한 결과이다”(Schmidt, 봉일원·박여성 73 재인용).

인식론의 출발은 “말로 표현된 모든 것은 관찰자에 의해 이루어진다”(Maturana, 봉일원·박여성 74 재인용)로서, 관찰자는 특정 상태에 대해 자신을 그로부터 분리한 뒤 자신이 마치 관찰자인양 그 상태의 해당 요소들에 대해 특성을 부여하며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조작을 하는데, 이때 관찰자 자신은 마치 타인이 자신을 관찰하듯이 제 2차 층위에서 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인자·사고 과정이란 외부세계의 인식 대상이 수동적으로 수용되거나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관찰과정에서 관찰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인지적·생물학적 조작의 결과로서 인지적 구성체이다. 번역과정에서 번역자는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번역자는 원천언어의 수용자로서, 목표언어의 생산자로서, 자신이 생산하는 목표언어의 수용자로서 끊임없이 이 모든 과정을 관찰한다.

자기구성적 체계란 체계의 요소들을 유지하는 그물망이 다시 이 그물망 체계의 요소를 생산해내는 체계인데, 이때 그물망은 자신의 경계를 스스로 설정하며 스스로를 현상학적 공간 내에 구성한다.

정보(구성)행위는 송신자가 보낸 전달내용을 수신자가 받는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동질의 능동적인 행위자들 사이에서 평행하게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창발적(創發的) 조작과정이다. 정보행위의 성공은 일방향으로의 정보이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상호작용하는 인지체계 사이에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공감각적영역의 산출과정에 달려있다.

창발현상(創發現象)이란 미시층위의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들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은 계속 보존되지만 전혀 새로운 어떤 성질이 거시층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러한 시각에서 번역을 보자면, 번역 행위란 번역행위 과정에서 행위자(인지체계)에게서 새로이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지적 창발체(創發體)로 규정할 수 있다. 즉 번역은 번역자의 인지적 자기기술이다. 번역등가 역시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의 발견이 아니라, 인지체계의 특성에 따른 체계구속적 인지과정이다. 번역은 상황과 목적지향적인 행위에서 귀결되는 인지적인 자기묘사이므로, 번역등가란 언어들 사이에서 이미 존재하는 확실한 원칙이 아니라 공감각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마투라나(Maturana)에 의하면, 두 생명체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생물학적 구조의 변화를 자극한다면 둘의 생체구조는 평행하는데 특히 신경망체계가 그렇다. 이러한 과정은 둘을 더욱 균등하게 하며, 평행의 동형성으로 이끄는 데 이렇게 생긴 두 생명체 사이의 공통구조 영역을 공감각적 영역이라고 한다. 언어영역에서는 개인의 인지와 사회적 정보행위 사이의 구조적 연결로 이 같은 공감각영역을 만들 수 있다. 번역의 행위에 있어서 번역자 역시 번역과정에서 이러한 공감각영역을 창출해 내고자 한다. 번역자는 자신의 번역을 독자가 이해하기 바라면서 번역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독자는 이해가 가능한 번역을 원한다는 사실을 관찰하면서 번역한다. 따라서 번역이란 공감각영역을 창출해 내기 위한 내재적 관찰자와 외재적 관찰자 사이의 끊임없는 연속 관찰과정이다.

공지시성이란 현실구성 요소들의 사회체계 내에 구성된 것들에 대한 인지적 관계 설정이다. 구성주의 사회학에서는 현실과 지식 구성에 있어서 사람들에게서 일정한 인지적 평행성을 확인하는데 이렇게 평행적인 현실구성으로 얻어진 영역을 “공지시영역”, 즉 사회적으로 수용된 의의와 의미의 현실구성체라 한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평행적인 사회화·문화화 과정을 통해서 인지와 감정, 규범상의 예상되는 기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평행적인 현실모형을 공유한다. 번역의 영역에서는 어휘소라든가 통사규칙, 관용구, 시제, 등의 식별소로 구성된 현실인 다양한 텍스트의 종류를 들 수 있다.

코뮤니카트(Kommunikat)란 이해의 과정에서 수단이자 매체인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인지개체가 자신의 인지영역 내에서 텍스트 전반에 대해 펼치는 모든 인지적 조작의 총체이다. 코뮤니카트는 명제층위, 감정층위,

실용층위에서 이루어진다. 번역의 경우 원저자의 원문, 번역자의 번역문, 독자의 독서과정, 간텍스트적인(intertextuell) 가공물 등의 커뮤니카트가 산출되며, 명제, 감정, 실용의 층위를 갖는다.

2.2.2 구성주의에 있어서 번역과 정보행위

봉일원·박여성은 대부분의 언어이론이나 의미론, 번역이론 특히 번역이론 가운데서도 기계 번역이론에서 정보를 단순히 기계적이며 기술적으로 조작 가능한 신호량으로 간주하고, 송신자와 수신자, 기호해독, 재기호화, 이송, 교환 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비판을 가한다. 이들에 의하면, 이러한 이론들은 묵시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저장했다가 필요하면 끄집어내 쓸 수 있는 그릇을 머리에 갖고 있다고 전제하지만, 저장의 장소가 두뇌라는 점은 맞으나 저장의 형태는 결코 그릇이 아니라 신경망에 산재한 자극의 흥분상태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활성화된 연속의 생명작용이다. 그릇의 모형에 비유한 번역모형에서는 코드전환을 통해 $1+1=2$ 라는 식의 산술적 과정을 암시하고 있지만, 정보는 두뇌의 자기생성작용의 결과이며, 그 원천자극이 규정할 수 없는 자신만의 구성물인 창발체를 산출한다. 따라서 생명체 사이의 정보행위는 최소한 교환의 형태가 아니며, 상이한 현실모형 속에서 살고 상이한 언어를 구사하는 화자들 간에는 더욱 그렇다. 정보행위에서는 정보의 교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체가 자신의 경험을 합성해내고 조직해내는 불변소의 구성이 중요하다.

언어를 상황과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시각 가운데 가장 만족할 만한 대안은 현대 화행론으로서, 성공적인 정보행위를 위해 번역자는 언어의 숙달 뿐 아니라 화행 상의 실용적인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정보행위자들이 정보행위를 위해 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서로의 진실성을 인정해야 하며, 어떤 주제로 정보행위가 이루어지며 특정 상황에서 화자가 어떤 발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 장르 및 발화, 문체 등의 형식을 갖춰야 하며, 정보행위자들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평가하여 사회에서 중시하는 언어사용 관습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회구조를 올바르게 숙지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지식이나 관심, 감정상태, 정보행위산출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

보행위자에게 성공적인 표본을 제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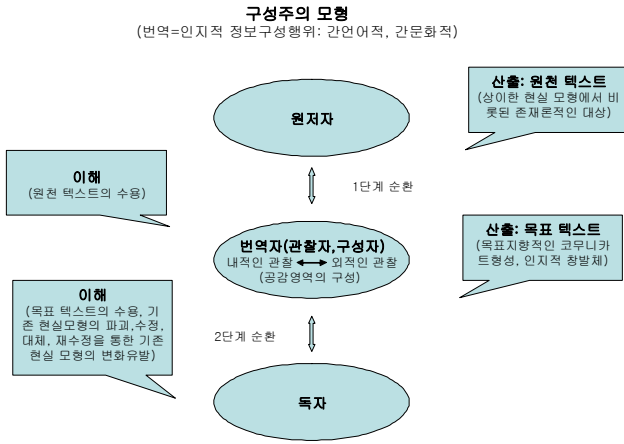
인지과정은 개체와 사회라는 구분을 통해서, 인지와 정보행위라는 구분을 통해서 수행된다. 인지는 신경망의 구조와 작동방식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규정되며, 길고도 확고한 사회화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규정되며, 정보행위는 문화에 의해서 규정된다. 언어를 통해서 의식과 사회의 구성이 가능해지며, 언어적인 사회화를 통해서 의식은 내면화된 사회적 현실모형들이나 문화적 주제, 규준과 그 절차 등에 좌우되거나 지향하게 된다. 구성주의 모형에서 이해란 발화산출자가 의도한 것을 파악하는 행위가 아니라 산출자가 만든 매체 산출물에 공감각적으로 평행하게 접근하는 정보행위이다. 또한 인지적인 자기구성으로서 코뮤니카트형성은 현실모형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지만 공동체의 정보행위를 위해서 사회적 이해과정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해는 개인의 인지를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며, 인지적 자율성과 사회적인 조절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코뮤니카트형성에 있어서 코뮤니카트가 사회적 조절에 저촉되지 않을 때만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번역의 등가결정이나 해석을 둘러싼 공방은 결국 인지개체자신인 번역자나 해석자의 주장이며, 텍스트에 주체와 결부된 자신의 의미를 객관성으로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성은 목표언어의 특수한 현실모형 속에서 항상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등가에 따라야 한다. 등가 역시 텍스트로부터의 의미추출이 아니라, 해당 텍스트에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또는 조절된 상관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자의 현실구성은 결코 주관적인 임의에 따라서는 안 되며, 개체 속의 사회적인 의의생성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2.2.3 구성주의 모형

구성주의 번역 모형의 구성에 있어서 번역정보행위는 산출자, 매개자, 수용자, 가공자라는 네 가지 역할을 통해 이루어진다. 번역정보행위의 자기구성은 행위자가 구성하는 행위로서 산출, 매개, 수용, 가공(원저자의 원문, 번역자가 읽은 원문, 번역자가 산출한 번역문, 독자가 읽는 번역문, 비평가가 쓰는 서평 등)으로 구성된다. 번역과정에서 상이한 참여자는 상이한 코뮤니카트를 산출하는데, 번역자는 원천언어 텍스트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코뮤니카트를 형성하며,

목표언어의 독자는 자신의 코뮤니카트를 형성한다. 코뮤니카트의 매개, 확산에 있어서는 중간매개자, 즉 텍스트의 역할이 중요하다. 코뮤니카트의 가공행위란 정보행위자가 기존의 코뮤니카트를 주제로 의도적으로 새로운 코뮤니카트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용이나 풍자, 변형, 표절, 편곡, 풀라쥬, 장르변경, 비평, 번역, 주석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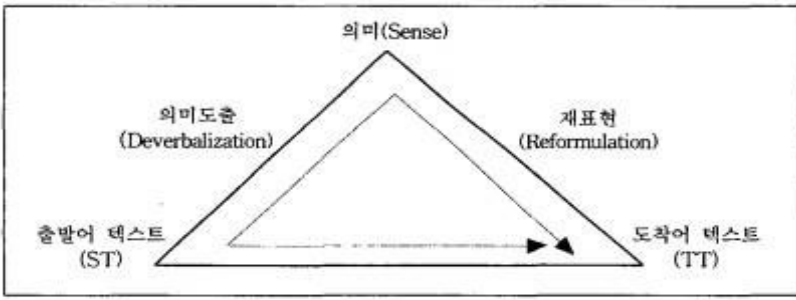
구성주의 모형에서 번역행위는 정보구성행위이며, 번역자는 관찰자이자 구성자이고, 번역결과물은 목표언어와 원천언어가 지니는 체계상의 관계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창발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정보행위는 인지적 구성행위로서, 목적에 부합하는 지향 및 기대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상호작용적인 대화행위인데 기능적으로 항상 최소한 자기 자신 또는 실제나 가상의 독자를 향한다는 점에서 늘 대화적이다. 번역행위는 실제층위에서 평행적으로 지향하는 공감각영역 속에서 수행되며 간언어적, 간문화적인 새로운 구성행위이다. 새로운 구성행위는 결코 임의의 변조가 아니라 인지적인 창발체를 뜻하는 것으로 결코 원문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왜곡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번역자는 자기구성과정 속에서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며 관찰과정을 통해서 메타언어 영역에서 번역등가를 공감으로 기술하고 구성한다. 번역등가는 언어체계에 기존하는 범주가 아니라, 행위자들이 목적과 의도, 심리상태, 텍스트종류의 규범, 상황에 따라 구성하는 관찰자의 범주이다. 번역행위는 기존의 현실모형을 바꿀 수 있는데, 번역물은 인지적 창발체로서 독자에게 또 다른 현실구성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틀 위에서 구성주의 번역모형은 이해와 산출로 구성되는 단계 순환모형으로 나타나며, 1단계는 작가와 번역자사이의 과정으로, 2단계는 번역자 자신의 내부에서 순환적으로 전개되는 작은 순환과정과 번역자와 독자사이의 두 번째 순환과정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는 1단계와 2단계 간의 커다란 순환과정으로 구성된다. 인지이론의 바탕에서 행위이론과 행위목적이론, 기능이론을 적용하고, 과정, 문화적 역동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번역모형을 필자의 이해를 토대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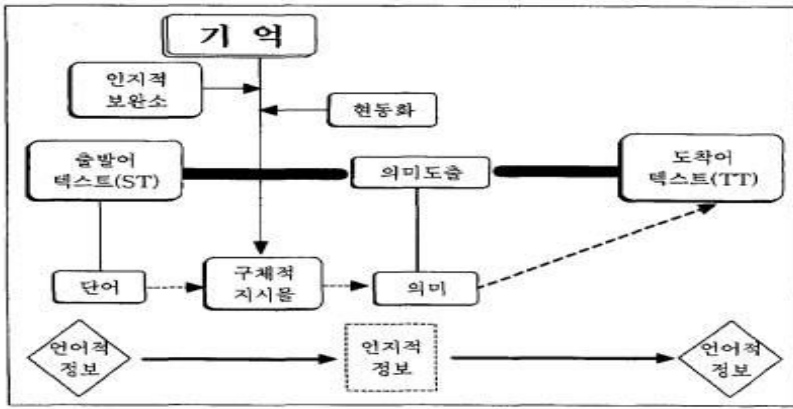
2.3 해석적 모형

셀레스코비치(Seleskovitch)가 처음으로 주창한 해석이론에서 번역이란 이미 정해져 있는 의미를 추출해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언어적 행위가 아니라 해석의 행위이다. 번역자는 원천 텍스트의 전체적인 의미와 효과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재표현함으로써 목표 텍스트를 생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체인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인 ‘의미’가 중요하다. 번역자는 ‘의미의 도출(deverbalization)’ 과정을 거쳐 의미를 이해하는 ‘해석’의 단계로 나아가며, 이 의미를 다시 목표 언어로 ‘재표현(reformulation)’하는 번역 과정을 겪는다. 이를 삼각형의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최정화 1998).



[그림 3]

의미의 도출과정에는 인간의 사고와 인지과정이 적극 개입된다. 원천 텍스트의 단어들은 이에 대응되는 목표언어로 바로 표상되는 것이 아니다. 번역자는 그 단어의 개념을 먼저 떠올린 뒤, 자신의 축적된 경험의 일부와 관련이 있는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해당 단어에 부여하고, 이에 부응하는 목표언어를 찾아낸다. 텍스트의 단어를 보고 자신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개념 혹은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을 떠올리는 일을 현동화(actualization)라 한다. 현동화는 텍스트에 쓰인 언어적 정보를 단서로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정보, 연상 등을 이용해 저장된 관련정보를 끄집어내는 일로서 번역 과정이 인지과정임을 뒷받침하는 요소이다. 번역과정이 인지과정임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개념은 ‘인지적 보완소(cognitive complements)’이다. 이는 텍스트에서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광범위한 언어외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인지적 보완소의 구성요소인 ‘인지적 맥락(cognitive context)’ 역시 ‘맥락의 의미(contextualized meaning)’를 도출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 해석이론에 있어, 전달내용의 의미도출을 통한 이해에는 언어적인 지식은 물론 사회문화적, 인지적, 의사소통의 맥락 지식 등이 개입된다. 의미도출의 과정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정호정 249).



[그림 4]

재표현 단계에서는 도출된 인지적 정보인 의미를 단순히 언어적 정보로 재부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등가를 추구하여 텍스트간 등가(inter-textual/text-bound equivalence)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번역자는 언어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어나 표현을 찾아서는 안 되며,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 전달되는 의미를 언어와 관계없이 파악하여 이를 다시 목표언어의 특징이나 규범 또는 관습에 맞도록 재창조해야 한다. 번역자는 또한 원천 텍스트의 의사소통 효과와 동등한 효과를 전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하며, 원천 텍스트의 전달내용은 물론 전달내용의 양(量)도 번역자 개인의 해석이나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가감삭제해서는 안 된다. 원천 텍스트와 등가의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독자의 이해가 즉각적으로 가능토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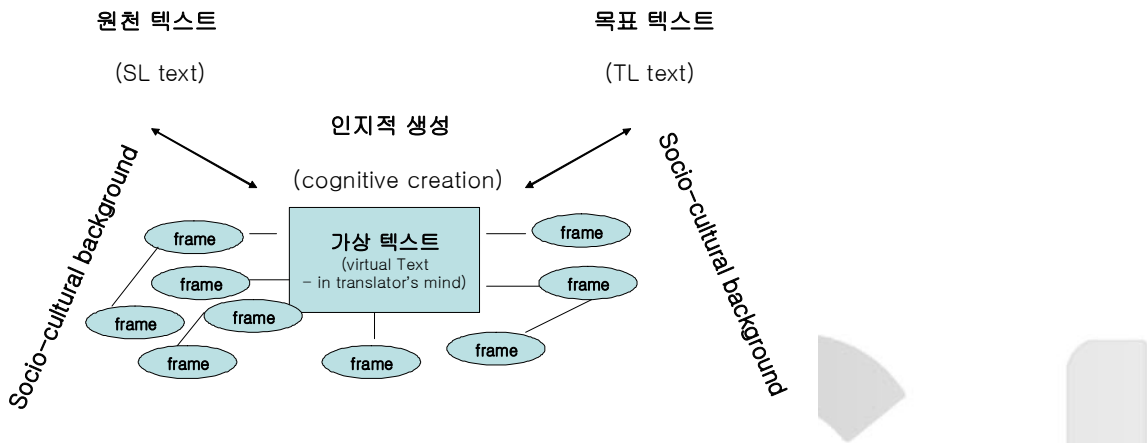
24 인지적 생성(Cognitive Creation) 모형

번역의 과정을 묘사하는 수많은 모형들 가운데 가장 지배적이었던 나이다의 모형에 대해 다른 의견들이 제기되면서, “의미의 재현(semantic representation)”이나 “가상의 번역(virtual translation)”과 같은 용어들이 출현하였다.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 사이에는 의미의 재현 과정이 있으며(Bell 21), 원천 텍스트를 목표 텍스트로 생성하기 전에 번역자는 그 둘과 관련이 있는 어떤 가상의

번역을 머릿속에서 한다는 주장이다(Neubert & Shreve 14). 가상의 번역은 저자나 번역자의 지식이나 사고, 느낌 등에 대해서 말해주며, 원저자나 번역자의 목적이나 의도, 욕구, 기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홈즈(James Holmes) 역시 이들과 비슷하게 “지도 그리기(mapping)”라는 이론을 제시하는데, 홈즈에 의하면 번역 과정은 다단계 과정으로서 번역자는 문장을 번역하는 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원문이라는 지도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생산하고자 하는 목표 텍스트에 대한 지도 역시 갖고 있다(96). 빌스(Wolfram Wilss)는 번역 행위의 다면적인 개념에 관심을 두는 한편, 문화 중심적인 접근과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빌스는 힐모어(Charles Fillmore)의 틀(frames)이라는 개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번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석적 절차(heuristic procedures)”와 “틀”을 포함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넬-혼비(Mary Snell-Hornby) 역시 해석적 접근을 주장한다. 스넬-혼비의 통합적 접근은 레이코프(Lakoff)와 로샤(Eleanor Rosch)의 범주화와 원형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다. 번역 이론가들 중 많은 사람들이 틀과 게슈탈트식 접근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노이베르트(Albrecht Neubert)와 쉬리브(Gregory M. Shreve)에 의하면, 번역자는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범주화된 언어적-텍스트적인 지식에 접근한다. 텍스트 수준에서 범주화된 지식은 텍스트의 유형 또는 장르라 하는데 범주화의 하위 범주는 틀이나 도식, 줄거리, 각본 등으로 분류된다. 노이베르트와 쉬리브는 ‘틀’을 경험과 지식의 조직이라고 정의한다(60). 텍스트에 의해 활성화되는 틀은 해당 언어 사용자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스 헤니그(Hans Hönl)는 틀을 텍스트와 관련이 있는 이전 지식과 일반화, 기대들의 조합으로 이해한다. 틀은 텍스트가 읽혀지는 동안 기대라든가 알려진 다른 유사한 텍스트 또는 기대합직한 텍스트에 얼마나 부응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평가받는다. 따라서 원천 텍스트는 원천 문화권의 원천 언어 사용자들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원천 텍스트 이전의 지식과 일반화, 기대가 조합된 산물이며, 목표 텍스트는 목표 문화권의 목표 언어 사용자들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목표 텍스트 이전의 지식과 일반화, 기대들을 고려해 생성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자는 목표 텍스트를 결과물로 내놓기 전에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 인지적 가상의 텍스트를 머릿속에서 그려보며 채는 것이다. 가상 텍스트는 목표 문화권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언어 사용자들의 이전 지식이나 일반화, 기대에 적절하게 부응하면서 목표 언어에 적합한 목표 텍스트로 산출된다. 인지적 생성 모형에서는 번역자가 원천 텍스트의 내용이나 양을 가감하거나 삭제, 왜곡하는 일은 필연적이다. 인지적 생성 모형은 상이한 언어와 문화 간을 중재하는 번역자의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의 수행에 반드시 수반되는 텍스트의 변환(Shift)을 번역자의 재량 하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인 차원으로 간주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한 통합적 모형을 그림으로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Katan 125).

인지적 생성 모형



[그림 5]

2.5 번역모형의 비평

지금까지 인지적 관점으로 번역 과정을 논했던 몇 가지 번역모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의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1) 번역 모형의 이론상 발전 단계와 주요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가 다르긴 해도 번역이 단순히 언어행위에 불과하다는 기존의 논의를 초월하고 있다.
- 2) 이러한 모형들에 있어서 번역의 행위는 의사소통의 행위, 정보구성행위, 해석의 행위, 인지적 생성 행위로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단계별 번역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3) 원천 텍스트에 대한 의사소통이나 정보행위는 결코 한쪽으로만 흐르는 일방행위가 아닌 쌍방향적인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는 나름대로의 역할과 이해에 필요한 공유 영역이 있다.
- 4) 번역의 과정에는 언어학적인 이론과 인지적 이론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이론, 행위이론, 해석이론, 목적이론, 기능이론, 소통이론, 등의 요소들이 다양하게 개입한다.
- 5) 목표 텍스트에 옮길 원천 텍스트의 전달 내용은 그 내용이나 양에 있어서 최소한의 손실이 있어야 하며, 번역자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임의적으로 원천 텍스트의 내용을 가감삭제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인지적 생성 모형만이 예외이다.
- 6) 번역자는 텍스트의 수용과 이해에 필요한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해내야 한다.
- 7) 목표 텍스트는 독자의 수용과 용이한 이해를 위해 목표 언어권의 문법체계와 언어사용 관습에 적합해야 한다.

이 모든 사항들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번역과정에 개입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보편적으로 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설명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인지적 생성 모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형에서 공통되는, 원천 텍스트의 전달 내용에 대한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유연하지 못한 사고는 번역의 목적이나 번역 텍스트의 기능, 번역 텍스트의 독자층, 등을 고려한 번역자의 번역 방법 및 번역 전략 등에 따라 얼마든지 원천 텍스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상이한 언어와 상이한 문화의 간극에서 번역에 개입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행위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번역자 역할을 반영하지 않는 모형이다.

번역자의 번역 능력 역시 번역 과정과 상관이 있다. 번역자가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번역에 개입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서 원천 문화권과 목표 문화권의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그와 관련된 틀들을 고려하며 번역 전략에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는 영역의 범주는 번역자의 번역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일정 수준의 번역 능력을 갖춘 자만이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번역 과정은 번역자의 번역 능력에 따라 상이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번역자의 번역 능력은 번역 방법에 제약을 가한다. 번역자의 능력에 따른 번역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단계는 ‘SL 틀 주도적 번역’ 단계로 원문의 문장을 ‘직역’²⁾ 위주로 번역하는 단계이다. 이는 원문의 문법 구조를 따르면서 단어들을 맥락에 관계없이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번역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TL 틀 주도적 번역’ 단계로 TL의 언어 체계 및 언어 사용 관습에 적절하도록 번역을 하지만 원문의 의미에 충실한 번역을 하는 단계이다. 뉴마크(Peter Newmark)의 번역범주 가운데 ‘충실한 번역’이나 ‘의미 중심의 번역’이 이에 해당하는 번역방법으로서 저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문학관련 텍스트의 번역에 적용할 수 있다. 3단계는 ‘전략적 틀 주도적 번역’ 단계로 번역자는 번역에 개입되는 요소 가운데 번역의 목적이나 번역 텍스트의 기능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어떠한 제약이나 구속 없이 자신만의 전략적인 틀 주도적 번역을 하는 단계이다. 번역자는 자신의 전략적인 선택에 따라 자유자재로 각종 번역방법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 번역 능력이 낮은 초보 번역자일수록 원천 문화권과 목표 문화권의 사회·문화적인 틀을 고려하기보다는 1단계로 바로 나아간다. 중급 번역가들은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순차적인 단계를 밟으며, 전문 번역가일수록 순차적인 번역 단계 대신, 자신의 번역 전략에 따라 자유자재로 1단계나 2단계, 또는 3단계로 점프하듯이 나아간다. 아주 간략한 예문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자.

[ST1] Thank you for having a good time with you.

[초보 번역자] 1) 당신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2) 번역의 방법에 대한 분류는 뉴마크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

2) 너와 함께 좋은 시간을 가져서 감사한다.

초보 번역자의 경우 원문의 틀 구조 그대로 번역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단어 대 단어 번역으로 번역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1)의 번역문의 경우 목표언어인 한국어에서는 ‘당신’이라는 호칭을 구어체에서 잘 사용하지 않거니와 사용한다 해도 말다툼 또는 그 이상의 다툼에서 상대방을 부를 때 주로 사용하는 호칭이다. 또는 연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격식을 갖추어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 사용이 매우 한정적이다. 따라서 ‘당신’이라는 번역어는 부적절하다. ‘함께’는 이미 ‘당신과’에서 ‘과’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이므로 굳더더기 표현에 불과하다. ‘좋은 시간’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한국어에서는 ‘좋은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일보다 ‘즐거운 한 때’ 또는 ‘재미있는 시간’ 등을 사용하며 ‘시간’에는 ‘보내다’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짝이다. 번역문 2)에서는 ‘당신’이라는 호칭 대신 ‘너’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번역하고 있으나 ‘너’에게 ‘감사 한다’라는 표현은 한국어의 대우법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고마워’ 부류의 표현을 사용해야 적절하다 하겠다. 번역자는 SL의 틀 구조의 단어 하나하나에 충실한 1단계의 번역을 하다 보니 TL의 체계 내에 적합한 번역문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중급 번역자] 1) (0)3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어 고맙습니다.

2) 너랑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고마워.

1)의 번역문은 TL인 한국어에서 1인칭 2인칭의 주어는 가급적 생략한다는 점을 반영한 번역문이다. 목표 언어의 틀 주도로 번역하다보니 원문의 특정 요소의 번역이 생략되긴 했어도 저자와 독자/화자와 청자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의 번역문은 전치사 'with'의 번역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함께’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한국어의 구어체에 적합하도록 동반을 나타내는 격조사 ‘-랑’를 사용하여 한국어의 언어체계에 보다 더 적절한 번역문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원문의 의미에 충실하도록 번역하다 보니 실제 한국어

3) 원문의 특정 요소의 번역이 생략되었음을 표시한다.

에서 구사하는 표현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다.

- [전문 번역가] 1)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덕분에 즐거웠어.
 3)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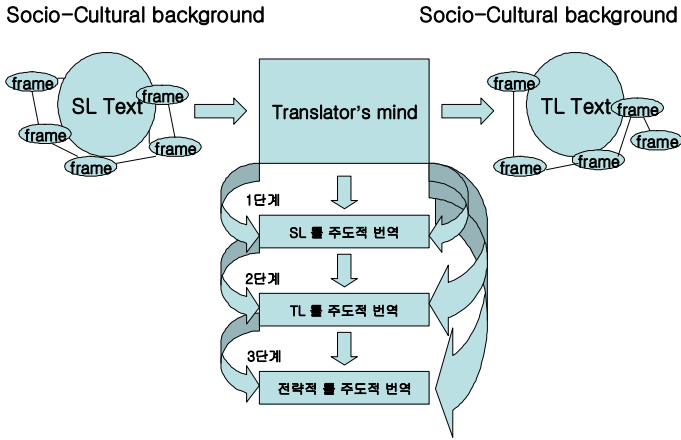
전문 번역가의 경우는 SL의 틀 구조 및 의미에서 벗어나는 일이 훨씬 자유롭다. 실제 사용되는 목표 언어의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원문 그대로 번역하는 일이 적절하지 않다면 맥락을 고려하여 목표언어와 문화에 보다 적합하도록 번역할 수 있다. 물론 번역 전략에 따라 1단계의 번역 방법이 필요하다면 SL 틀 주도적인 번역문으로, 2단계의 번역 방법이 필요하다면 TL 틀 주도적인 번역문으로 자유자재로 널뛰기 번역 역시 가능하다. 이와 같이 번역자의 번역능력 또한 번역 모형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나 앞서 열거한 번역모형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인지적 접근의 번역 모형 가운데 번역자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반영하는 인지적 생성 모형을 토대로 번역자의 번역 능력을 번역 모형에 반영하는 새로운 번역 모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결론

이상으로 인지적 관점에서 번역의 전반적인 과정을 밝히고자 노력을 기울인 기호해독/재기호화 모형, 구성주의 모형, 해석적 모형, 인지적 생성 모형을 살펴보았다. 번역모형은 번역에 관계된 다양한 요소들을 품으며 설명 가능하도록 점차 통합적으로 진화하는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간과되고 있는 부분은 아주 오래 전부터 논쟁의 한 가운데 있었던 번역자의 역할이다. 번역자가 원활한 의사소통 및 번역의 목적이나 기능에 비추어 원천 텍스트의 전달 내용을 목표 텍스트에 표현하는데 있어서 가감 및 삭제, 왜곡이 불가피한데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목표 텍스트가 원천 텍스트에 종속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는 더 나아가 번역자가 원저자에 종속된 존재임을 함축한다. 그러나 언어는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번역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이 한층 더 해가는 요

번역의 과정



[그림 6]

즈음 번역자의 언어 및 문화의 중재자 역할 역시 그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상이한 문화 사이에서 가교의 역할을 하는 중재자는 그 역할에 필요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재량의 남용은 간과할 수 없으나 적절하고 전략적인 재량은 반드시 필요하다. 번역학의 전개에 있어 번역자의 중추적이고 중재적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목표 텍스트의 독자성과 권위가 인정되고, 번역학을 언어학의 하위범주인 비교문학의 일부로 간주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인지적 생성 모형이 다른 모형들 가운데서 돋보이는 이유는 바로 번역자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과 그에 수반되는 변환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지적 생성모형 또한 번역자의 번역 능력에 따른 상이한 번역과정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인지적 생성 모형에 번역자의 번역 능력에 따른 번역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번역의 모형이 눈으로 확인 가능하지 않은 영역을 설명하는데서 오는 실증적인 자료의 빈약함은 차후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가 해결되어 모형이 이론으로 받아들여지는 날이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 역시 해롭지 않다.

참고문헌

- 김윤환. 1999. 「번역의 개념과 언어학적 번역론」, 『서울대학교 인문논총』 42, 117-136.
- 김지원·이근희·옴김. 2004. 『번역학: 이론과 실제』. 서울: 한신문화사 (Susan Bassnett. 1991.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봉일원·박여성. 1994. 「구성주의 번역이론을 위한 인식론적·인지과학적 토대」, *Dongguk Journal Humanities & Social Sciences* 33. 71-105.
- 배양서. 1974. 「번역 및 통역의 이론」, 『명대논문집』 7. 69-95.
- 이근희. 2005. 『번역산책: 번역투에서 번역의 전략까지』. 서울: 한국문화사.
- 조재영. 1995. 「번역방법의 유형과 번역의 단계」, 『언어와 언어학』 1:20. 101-129.
- 정호정. 2001. 「번역학에 있어서의 통합모델: 해석이론을 중심으로」,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3:1. 243-266.
- 최정화. 1998. 『통역번역입문』. 서울: 신론사.
- Baker, Mona. (ed.). 1998.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assnett, Susan. 2002. *Translation Studies*. 3r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ell, Roger T. 1991. *Translation and Translating*. Harlow, Essex: Longman.
- Katan, David. 1999. *Translating Cultures: An Introduction for Translators, Interpreters and Mediators*. Manchester, UK: St. Jerome Publishing.
- Newmark, Peter. 1998. *A Textbook of Translation*. Hertfordshire: Prentice Hall Europe.
- Nida, E. A. and C. R. Taber.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J.Brill.
- Shuttleworth, Mark and Moira Cowie. (eds.). 1999.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Bell, Roger. 1991. *Translation and Translating: Theory and Practice*. London &

- New York: Longman.
- Holmes, James S. 1988. "Translated! Papers on Literary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In *Approaches to Translation Studies* 7. Amsterdam: Rodopi.
- Lederer, M. 1990. "The Role of Cognitive Complements in Interpreting. Interpreting-Yesterday, Today, and Tomorrow", *American Translators Association Scholarly Monograph Series* IV, 53-60.
- Lederer, M. 1998. *The Interpretive Theory of Translation: a Brief Survey*. Teoria de la traducción, 1, 35-43
- Neubert, Albrecht and Gregory M. Shreve. 1992. *Traslation as Text*. Kent, Ohio: The Kent State UP.
- Seleskovitch, D. 1980. "Translating: From Experience to Theory". W. K. Winckler, & J. A. Valls (trans.) *Bulletin of the South African Institute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1-24.
- _____. 1986. "Interpreting versus Translating". In *Proceedings of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TA*, 369-376.
- _____. 1987. "Context-free Language and Sense in Translation".
- Lorscher, In W. & Schultze R. Eds. *Perspectives on Language in Performance*, 441-446.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 _____. 1988. "Technical and Literary Translation: A Unifying View". In Picken (Ed.), *Proceedings of the 2nd Annual Conference of the Institute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83-88.
- _____. 1989. "Teaching Conference Interpreting". *ATA Scholarly Monograph Series*, III.
- Wilss, Wolfram. 1989. "Multi-Facet Concept of Translation Behavior", *Trarget* 1:2, 129-149.

[Abstract]

Translation Models

Lee, Geun Heui
(Konkuk University)

The whole process of translation is challenging to understand. The processes that are carried out are not visible and often not totally understood. Over the years, there have been several attempts at using linguistic, semiotic, hermeneutic, cognitive, constructive, and cultural approaches in the translation field to find an acceptable, universal theory. Although there are no universally accepted models, currently the cognitive approaches are the dominant models within the translation community. Cognitive approaches indicate that the behavior of man interacts with various factors surrounding him as well as linguistic elements. Therefore, it is worth researching and analyzing translation models viewed from cognitive approach and exploring the factors interacting with translators in the process.

This study begins with the introduction of four cognitive translation models: decoding/re-encoding, constructive, hermeneutic, and cognitive creation. This paper ultimately aims at proposing a new translation model which accounts for the weak points of the conventional model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eatures of these models are as follows. 1) Translating is not only transferring a language into another one. Translation is rather communicative, hermeneutic, and constructive behavior among people whose languages and cultures are different. 2) The direction of informative communication is not one-way but interactive. Every participant in a communicative situation has his/her own role and there is an area shared by all of them. 3) These models aim at an integrated model by incorporating

linguistics, hermeneutics, semiotics, cultural sociology, active theory, Skopos theory, relevance theory, Functional theory and Communicative theory. 4) Messages of a source text transferred on a target text must not be manipulated at translator's will. Cognitive creation model is the exception. 5) A translator has to produce a target text which is accepted by readers using a combination of prior knowledge, generalizations and expectations regarding the text. 6) Expressions on a target text should be natural to the target language's system and conventional usages.

Given these features, one thing that should be focused on in a new model is the importance of the translator's role. As a mediator and creator between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s, the translator needs to shift the original message into something that is understood by the parties involved. His/her translation ability also makes him/her go through different decision making process.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is invisible to the general audience and exists solely in the translator's mind. Clearly a new model should conta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a translator. That is what this article is proposing: a systematic approach to translation that limits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translator.

▶Key Words: Translation models, encoding/re-coding, hermeneutic, constructive, cognitive, role of translator, translation process, source language-oriented translation, target language-oriented translation

이근희

건국대학교 강사

keunheui@unitel.co.kr

관심분야: 번역

논문투고일: 2006년 4월 24일

심사완료일: 2006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06년 6월 10일

K C I